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2. No. 1. 2001

移精變氣療法에 관한 현대적 의미의 이해 -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

류영수 · 민상준 · 김태현 · 강형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신경정신과 교실

A Review of the Traditional Concepts of Psychologic Therapy in Oriental Medicine—specially about li-Gyeong-Byun-Qi(移精變氣療法) Therapy—

Yeoung-su Lyu · Sang-joon Min · Taeheon Kim · Hyung-won Kang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Iksan Korea.

Psychology and estern medicine are congenital therapeutic partners. they are closer in concept and practice to each other than either is to the principles of western science and medicine.

Estern medicine, like most psychotherapies, is concerned with an individual's unique physical and emotional stat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therapy which is one of the psychotherapies in estern medicine.

We studied few representative books which are about in estern medicine and also studied some clinical case reports on psychotherapies by estern medicine therapy, specially about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therapy. Generally we understood Chukyoo(祝由) is the eldest psychological therapy which is based on Shamanism and controlled by Shaman as a doctor. and it is similar to simple psychoanalysis in western medicine. The psychologic therapy of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is typical estern medicine psychologic therapy since the principle of estern medice had built like Hwang-Chi-Nei-Ching(黃帝內經). The meaning of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therapy is holistic psychologic therapy which are based on the harmony of mind and body.

The practical method of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are to refresh patient's emotional condition, like ventilation. The second healing method of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is persuasion by dialogue. The third method is to clear patient's doubt by explaining of some questions. Therefore, the indication of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therapy are psychosomatic disease or psychogenic problem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the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therapy could be powerfully adopt to prevent or treat lots of disease which is related with mind and body induced by stressor.

Key words: li-Geug-Byun-Qi(移精變氣療法) therapy, Chukyoo(祝由), The psychologic therapy

교신저자 : 류영수, 전북 전주시 덕진동 2가 142-1 원광
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063-270-1021, Fax. 063-270-1199, e-mail:
yslyu@wonkwang.ac.kr)

I. 머릿말

한의학에서는 形神一體論에 입각하여 정신작용

은 곧 神의 구체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며 精과 氣는 相養하여 精과 氣의 협동작용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 神이라 하였다¹⁾. 아울러 한의학에서의 질병치료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는 心身一原論의 병리관과 치료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또한 그같은 자연관, 생명관을 포함하고 있다²⁾.

內經 이전의 上古시대에는 정신의 이해나 정신질환에 대한 病因論 또한 자연숭배 사상이나 초인간적인 힘에 의한 外因說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며 祝由와 같은 원시정신요법이 정신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병치료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祝由란 주로 巫醫에 의해 呪文이나 讀經, 無意識, 祈禱, 符籙, 說諭 등의 방법으로 병의 유래를 알아서 이를 빌어서 풀어해친다는 뜻이며, 일종의 암시요법으로 이해되며 당시 사회에 정신질환은 물론이고 미리 닥쳐올 재앙까지도 德을 근본으로 하는 기원을 통해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³⁾.

이후 內經대에 이르러 유물론적인 중국 철학의 영향으로 의학에서도 정신은 신체화되어 심리치료 또한 祝由에서 移精變氣療法으로 대체가 되어 移精變氣療法은 한의학의 가장 구체적인 정신요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移精變氣療法은 神의 치료를 위해 精과 氣를 바꾸어 고치는 것으로 곧 모든 邪氣로써 正氣를 상하지 않고 정신을 오히려 보강함으로써 정신을 치료하는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內經시대 의학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중국의학의 心身一原論의 특성상 모든 병에 정신병조차도 신체적 치료를 실시하는 패턴으로 흘러 정신요법도 신체화되어 일반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의 부속물 정도로 남겨두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화 사회에 있어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의 증가는 한의학에서의 심리치료 중 祝由나 移精變氣療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각종 정신질환의 문제를 정신 그 자체에서 두기보다는 오히려 감정과 신체의

조화 및 균형에 바탕을 둔 移精變氣療法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법은 현대인에게 새롭게 주목받는 심리요법으로 이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이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한의학의 역대 문헌과 임상사례의 분석을 통해 祝由와 移精變氣의 의미 이해 및 移精變氣療法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1. 祝由: 『張氏類經·卷12』⁴⁾

上古시대에는 德으로 다스려지던 시대라 세상이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으니 邪氣가 침범하지 못하므로 병이 있으면 祝由만으로 질병이 치료되었다.

祝由란 어긋난 精과 氣를 바로 잡아서 邪氣가 正氣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이 더욱 강해져 몸 안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으로, 祝由의 방법으로는 신령스런 符籙이나 나뭇잎 조각을 가지고 병의 쾌유를 빌어 治病하는 것인데 귀신의 조화라 함은 자신의 몸이 邪氣에 感受된 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바가 크게 되면 갑자기 發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짓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發病의 과정을 귀신의 조화로 인식하기 보다는 비록 사람 몸에 邪氣가 머물러 있지만 아직 發病하지 않은 상태로 마음속의 좋고 나쁨이 일어나 氣血을 어지럽게 하여 發病한 것으로, 보아도 보이질 않고 잘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귀신의 장난으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이처럼 上古시대 祝由를 시행한 巫醫는 모든 병 지식에 해박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병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 祝由를 통해 병을 낫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祝由의 의학적 가치는 치료보다 예방적 차원이 우선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發病의 근본을 귀신의 조화로 이해하였던 것은 실제로는 귀신이 아닌 것으로 좋고 나쁨의 마음에서 귀신이 생겨나니 그 發病의 원인을 알고 나면 그 원인을 통해 병을 낫게 하면 마음속의 귀신은 사라지는 것이다 생각

하였다.

결론적으로 祝由란 귀신에 의한, 즉 현대적으로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發病과 유관한 듯 싶다. 하지만 그 범위는 단순한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약물의 병행이 필수 요건이며 귀신이라는 자체도 실제로는 신체가 허약한 사람에게서 그 浮越한 정신이 물질화 되는 것으로 본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보다 나아가서 祝由를 주관하던 巫醫는 미리 닦쳐올 재앙까지도 德을 근본으로 하는 기원을 통해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 나중에 가서는 귀신에 의탁해서 吉凶禍福을 예언하고 합부로 그 일을 행하는 惑世誣民의 위치, 혹은 무속신앙 정도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같은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巫醫에 있어 德의 결여가 연유라 생각된다.

2. 移精變氣療法: 『黃帝內經·素問·移精變氣論編』⁵⁾

「黃帝問曰, 余聞古之治病 惟其移精變氣 可祝由而已 今世治病 毒藥治其內 鍼石治其外 或愈 或不愈 何也. 岐伯對曰 往古人居禽獸之間 動作以避寒 陰居以避暑 內無脊蒸之累 外無伸宦之形 此罔悛之世 邪不能深入也 故毒藥不能治其內 鍼石不能治其外 故可移精祝由而已 當今之世不然 憂患緣其內 苦形傷其外 又失四時之從 逆寒暑之宜 賊風數至 虛邪朝夕 乃至五臟骨髓 外傷空竅肌膚 所以小病必深 大病必死 故祝由不能已也……」

「黃帝가 물기를, 옛적에는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移精變氣와 같은 祝由의 방법으로 가능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독한 약으로 몸안의 臟腑를 치료하고 침으로 몸밖의 피부를 치료하는데 혹은 낫기도 하고 혹은 낫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岐伯이 답하길, 옛적에는 사람들이 짐승들과 함께 살았으며 몸을 움직여서 추위를 피하고 그 늘진 곳에서 더위를 피했으며, 內的으로는 몹시 사모하는 번거로움이 없었고 外的으로는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질 않았으니 이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시절에는 병이 몸 안에 깊게 들어 올 수가 없었

다. 그러므로 몸에 병이 났을 적에 독한 약이나 침 등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이 오직 祝由와 같은 방법으로 移精하면 병이 낫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하여 온갖 근심걱정으로 마음을 상하고 무리한 勞役으로 몸이 피로한 가운데 사계절의 질서 또한 자주 뒤바뀌어 지나치게 춥거나 더웁지를 않나 賊風이 자주 오거나 虛邪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몸안으로는 五臟과 骨髓가 병이 들거나 몸밖으로는 피부나 감각능력이 상실되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작은 병은 잘 낫질 않고 오히려 重病이 되며 큰 병에 걸리는 경우는 回生불능으로 죽게 되기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연유로 祝由로 치료하게 되면 병이 잘 낫질 않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移精變氣療法에 대한 內經의 설명은 內經 이전의 과거와 지금의 내외 환경이 변하여 달라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즉 과거에 비해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잃고 虛邪賊風과 같은 邪氣가 몸안 깊숙이 침입해 있는 당시의 현대인에게는 祝由와 같은 단순 정신요법만으로는 치료하기가 너무 깊게 되었으며, 따라서 移精變氣療法과 같이 邪氣로서 正氣를 상하지 않고 정신을 다시 강하게 하고 인체 내부를 더욱 굳건히 지킨다는 의미로 암시와 같은 방법으로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移精變氣療法의 의의는 內經의 神形一體論의 이론적 바탕 위에 정신질환의 病因도 원시적이고 shamanism적 요소가 강한 祝由에서 內經의 합리적인 病因觀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祝由와 移精變氣療法은 각각 서로 다른 病因論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內經에서는 유물론적 합리주의로 인해 祝由를 지양하고 移精變氣療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移精變氣療法의 原理:

中醫心理治療 원리에는 情緒情感編, 理智計謨編 및 氣功行爲編 등의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理智計謨編은 의사의 지혜나 계략이 담긴 언어로 환자의 심리를 안정시키어 질병에 대한 대항능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법으로 일종의 암시요법과 같다⁶⁾.

理智計謨編의 대표적인 방법이 곧 內經에서 밝힌 移精變氣療法으로 移精變氣療法의 핵심은 환자의 집중력을 轉移시켜 治病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치료방법으로는 심리문제를 신체로 轉移하거나 혹은 신체질환을 心理上으로 轉移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移精變氣療法의 방법은 때에 따라 또는 환자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 이므로 일정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행해졌다³⁾.

- 1) 術을 써서 환자의 氣分을 轉換시키는 법.
- 2) 對話로서 說得하여 치료하는 법.
- 3) 方法으로서 氣分을 轉換시켜 치료하는 법.
- 4) 疑惑에 의하여 생기는 병은 그 疑惑을 解明해줌으로써 치료하는 법.

4. 移精變氣療法에 대한 臨床例:

『과거의 임상사례』

사례1)

신라시대 재상 김양도(?-670)가 어렸을 적에 갑자기 입이 붙고 몸이 굳어져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언제나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거느리고 와서 집안의 음식을 다 먹어치워 버려 양도는 귀신을 물러가도록 명령하고 싶었으나 입이 붙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密本法師를 맞아들어 귀신을 호령하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經을 펴기도 전에 병이 나아서 말도 통하고 몸도 풀려서 이 사실을 자세히 말하게 되었다⁷⁾.

이는 삼국시대 정신질환증의 하나인 히스테리성 마비에 환각이 수반된 것으로 추정되며 불교 의식을 통하여 치료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신치료에 있어서 고대인들은 呪術, 符籙, 푸닥거리 등의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현대

정신요법의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형태도 포함된다. 이같은 정신 신체증후군은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 정신장애의 치료를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힘과 동일시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요소를 조화시키려 하였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러 동물이나 식물을 먹어 치료하였다⁸⁾.

사례2)

如王中陽治一婦 疑其夫有外好 因病失心狂惑 雖投藥稍愈 終不脫然 乃陰令人佯言某婦暴死 殊爲可憐 患者忻然 由是遂愈 此雖非巫 然亦以法而去其所惡之謂也⁴⁾

王中陽이 어떤 부인을 치료하는데 사연인즉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마음이 심란하니 미칠 것 같은 병이 생기게 되었다. 이같은 연유로 투약을 해도 조금 좋아지는 듯하다 완전히 치료 되지 않아 이에 王中陽이 환자에게 이르길 남편과 외도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急死한 것처럼 꾸며 그 거짓 소식을 전하니 부인이 기뻐하여 나왔다.

이는 비록 巫醫가 아니더라도 病者가 싫어하는 바를 없앴으로써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 르 移精變氣療法 중에 病者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방법이다. 서양의학 적 견해로는 지지정신요법 중 주로 설득(persuasion)이나 환기(ventilation)요법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⁷⁾.

사례3)

又如韓世良治一女 母子甚是相愛 既嫁而母死 遂思念成疾 諸藥罔效 韓曰 此病得之於思 藥不易愈 當以術治之 乃賄一巫婦 授以秘語 一日夫謂其妻曰 汝之念母如此 不識彼在地下 亦念汝否 吾當 他往 汝盍求巫婦卜之 妻忻諾 遂召巫至 焚香禮拜而母靈降矣 一言一默 宛然其母之生前也 女遂 大泣 母叱之曰 勿泣 汝之生命剋我 我遂蚤亡 我之死 皆汝之故 今在陰司 欲報汝讐 汝病慙慙 實 我所爲 我生則與爾母子 死則與爾寇讐矣 言訖 女改容大怒曰 我因母病 母反害我 我何樂而思之 自是而病愈矣 此去其所慕之謂也⁴⁾

韓世良이 한 여자를 치료하는데 이 여자는 평소 모친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사이였다. 그 여자가 시집을 가서 얼마 지나 모친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모친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나쳐 도리어 병이 나서 백약이 무효라. 韓世良이 이르길, “이 여자의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으로써가 아니라 정신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무당을 비밀리에 불러 여자의 사연을 털어놓은 연후에 그 남편으로 하여금 아픈 부인에게 말하길, “당신이 모친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이왕 돌아가신 분이 이런 내막을 어찌 알겠소? 당신만큼이나 죽은 당신 모친이 당신을 생각하는지 알 도리가 없구려. 그러므로 내가 잠시 외출할 테이니 무당을 불러 집이나 쳐보시오.” 라고 허락하자 이에 여자가 무당을 부르니 무당이 모친의 혼령을 불러 병의 하길 어머니의 생전의 모습과 흡사하였다. 이에 여자가 크게 눈물을 흘리며 울자 모친이 질책 하며 말하길, “울지 마라, 너의 생명이 나를 지나치게 켜해서 내가 죽었으니 이제 내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너의 병을 생기게 한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우린 부모 자식 사이였지만 내가 죽어서는 너와 원수지간이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크게 화를 내며 “나의 병이 발생한 것이 어머니 때문인 것을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하다니 이제 내가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버려야겠다” 라고 하였다. 그후에 여자의 병이 나았으니 이것은 곧 여자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바를 없앤 연유로 곧 모친에 대한 병적인 사모의念을 오히려 화를 나게 하여 풀게 하는 일종의 移精變氣療法중 變氣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양의학적으로는 일종의 최면상태에서 암시를 활용하여 환자를 일시적으로 치료자의 의도대로 따르도록 유도하는 최면요법과 유사한 치료법으로 추정된다.

사례4)

又余嘗治一少年姻婦 以熱邪乘胃 依附鬼神 毆罵驚狂 舉家恐怖 欲召巫以治 謀之於余 余曰 不必

余能治之 因令人高聲先導 首懾其氣 余即整容 隨而突入 病者褻衣不恭 瞳視相向 余施怒目勝之 面對良久 見其赧生神怯 忽爾潛逝 余益令人索之 懼不敢出 乃進以白虎湯一劑 諸邪悉退 此以威儀勝其褻瀆 寒涼勝其邪火也.⁴⁾

내가 일찌기 한 어린 부인을 치료하였는데 熱邪가 胃를 침범하여 흡사 귀신들린 듯한 狂症을 보여 집안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무당을 불러 치료하고자 하다 내게 물으니 내가 이르길, “무당 필요없다, 내가 치료할 수 있다” 하고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病者에게 가까이 가니 病者가 미친 듯한 얼굴로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이에 내가 크게 화난 표정으로 病者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 病者에게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시 나타나 보이더니 홀연 사라졌다. 이에 사람들에게 환자를 목격하고 그 같은 두려워하는 것이 나오지 못하게 한 후 白虎湯 한 제를 먹이니 귀신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같은 치료법은 病者에게 크게 위엄을 보이여 그 추악함을 이기고 재차 차고도 시원한 약으로 그 邪火를 내친 것으로 上記 임상 예는 나이 어린 부인의 類似狂症에 대한 치료법으로 移精變氣療法の 전형적인 한의학적 치료형식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즉 사례1)2)3)은 祝由의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사례4)는 移精變氣療法の 형식으로 무당대신 의사인 저자가 병자에게 크게 위엄을 갖추어 환자의 추악한 邪氣를 제압한 것은 곧 ‘變氣’라 할 수 있고 아울러 白虎湯으로 환자의 胃熱을 내친 것은 胃의 變故를 정상적인 胃의 상태로 옮기는 노력으로 곧 ‘移精’이라 할 수 있겠다.

사례5)

又治一儒生 以傷寒後金水二藏不足 忽一日正午對余嘆曰 生平業儒 無所欺害 何有白鬚老者 素服持扇 守余不去者三日矣 意必宿冤所致也 奈之何哉 余笑曰 所持者非白紙扇耶 生驚曰 公亦見乎 余曰 非也 因對以刺法論人神失守五鬼外干之義 且解之曰 君以肺氣不足 眼多白花 故見白鬼 若腎水不足

者 眼多黑花 當見黑鬼矣 此皆正氣不足 神魂不附於體 而外見本藏之色也 亦何冤之有哉 生大喜曰 有是哉妙理也 余之床側 尙有一黑鬼在 余心雖不懼 而甚惡之 但不堪言耳 今得教可釋 然矣 遂連進金水兩藏之藥而愈 此知其病所從生 而微言以釋之也 諸如此類 皆鬼從心生 而實非鬼 神所爲 故曰似鬼神也 然鬼既在心 則誠有難以藥石奏效 而非祝由不可者矣 使祝由家能因岐伯之言 而推廣其妙 則功無不奏 術無不神 無怪其列於十三科之一 又豈近代惑世誣民者流 所可同日語哉 賊風篇義見疾病類三十一 所當互考⁴⁾

내가 또 한 儒生을 치료했는데 傷寒후에 肺腎의 二藏이 虛하여 하루는 내게 탄식하기를 "내 평생 유학을 익히며 남을 속이거나 해 끼친 일이 없는데 백발의 노인이 부채를 들고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3일쯤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 원한이 있는 것이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하자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그 부채는 하얀색이 아니었소?" 유생이 놀라며 "어찌 아셨습니까 당신도 보았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아니오"라며 곧 이어 刺法論을 설명하며 말하기를, "사람의 정신이 약해지면 귀신을 보게 되는 것으로 당신은 肺氣가 부족하여 백색의 眼花가 생기기 때문에 白鬼를 본 것이요. 만약 腎水가 부족하면 검은색의 眼花로 인해 검은 귀신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精氣가 부족하여 정신이 몸에 붙질 못하고 氣가 虛한 本臟의 色으로 밖으로 나타난 것이지 어찌 귀신이겠습니까?" 儒生이 기뻐하며 "그렇군요 내 침상 옆에 한 명의 검은 귀신이 있는데 내 마음이 두려워서 그것이 싫어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 까닭을 알겠습니다". 하고 肺腎의 臟腑를 치료하는 약을 써서 나왔다.

上記의 치료법 또한 사례4)와 같은 移精變氣療法 형식에 따른 특히 '移精'에 의한 治神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內經 이래 한의학의 정통적인 치료법에 입각한 것으로 「神形一體」의 한의학의 心身論에 의한 정신생리의 기초를 五藏과 관련 지워 정신적인 질환이라 할지라도 그 치료의 목표는 五藏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두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과거의 정신요법에 대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한의학에서의 祝由나 移精變氣療法은 전통적인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神病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단순히 祝由와 같은 단순한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정신요법이나 혹은 약물요법과 병행하여 精과 氣를 적절하게 다스리는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

『최근의 臨床例』

사례1)

63세 여자 분이-3년 전부터 아침이면 이유없이 대성통곡을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煩燥 症으로 안정이 되질 않아 마을을 온통 미친 듯이 떠돌아 다녀야만 답답함이 누그러지는 증세로 여러 군데 치료를 전전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내원하였다. 처음 며칠간은 舌紅少苔, 脈弦而數 등을 기초로 肝氣鬱結의 辨證아래 逍遙散加減方을 투여하였으나 아침에 대성통곡하는 증세는 여전하였다.

이에 환자와 1시간 가까이 상담을 시도한 결과 환자는 臟躁症에 해당되는 鬱證으로 판명되었다. 즉 환자 남편은 60후반으로 젊었을 시절부터 성직으로 조루증이 있어 늘 부인을 만족 시켜 주지 못하다 수년전 남편이 가벼운 中風을 앓고 난 후 더욱 성적능력이 감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中風을 앓고 난 이후 더욱 성생활에 집착하여 거의 매일 부인을 가까히 하고자 하였지만 부인의 성적인 욕구불만은 근래 더욱 쌓여만 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부터 갑자기 위에서 밝힌 것처럼 아침이면 대성통곡을 하거나 온동네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게 되는 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상담결과 부인은 젊었을 적부터 성적인 욕구불만으로 인한 鬱症이 최근 남편에 의해 악화되어 나타나는 「臟躁症」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남편과 부인을 모두 불러서 1주일 2회씩 매회 30분 정도 성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여 가벼운 농담등으로 늘 웃음 속에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했던 성에 대한 갈등을 후련하게 털어놓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처방으로는 柴胡加龍骨牡蠣湯을 투여하였으며 3주 후에 여러 증상이 모두 소실되어

그후 현재까지 재발하지 않게 되었다.

이같은 부인의 사례는 성적인 욕구불만에 의한 일종의 해리형 히스테리 증상과 유사하며 정기적인 상담에 의한 유쾌한 분위기는 환자의 성에 대한 갈등해소와 기분전환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變氣) 아울러 甘麥大棗湯의 약물투여는 신체적으로 환자의 心氣와 脾血을 補 하고 나아가서 心身을 편안하게 하여(移精) 결국 心身の 안정으로 대성통곡이나 煩燥症과 같은 정신적, 육체적 증상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부인의 성적인 히스테리 증상의 치료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移精變氣療法の 전형적인 치료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며 따라서 移精變氣療法은 현대에서도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히스테리 장애에 유효한 치료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료된다.

사례2)

50대 중반 여자가 霍亂, 嘔吐, 泄瀉 및 전신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진찰결과 中氣證으로 사료되어 星香正氣散加味方을 투여하였지만 제증상이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게 되어 입원한지 2주째 부터는 1주일에 2회씩 매회 약 30분 정도 환자와 상담시간을 갖게 되었다. 상담 결과 환자는 수 십년 동안 고부간의 심한 갈등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심한 경우, 상기증상이 발작적으로 일어나곤 하였다.

특히 상담의 요령으로 환자로 하여금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와의 따듯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자 환자는 시어머니와의 고생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쏟아지는 눈물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시었다. 동시에 한약처방으로는 八味順氣散加味方을 투여하여 상담과 약물투여 1주일후부터는 재발없이 모든 증상들이 소실되어 퇴원하게 되었다.

이같은 임상 예는 시부모로부터 억압된 욕구나 감정 등이 신체적인 마비나 霍亂과 같은 증상으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일종의 전환신경증의 실례라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도 이같은 전환신경증 환자 치료시 우선 환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고(變氣) 동시에 八味順氣散加味方으로 益氣兼順氣(移精)작용으로 인하여 환자를 完治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방 정신요법중의 移精變氣療法은 현대에 있어서도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心身症(Psychosomatic disease) 혹은 神經症(neurosis)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생각된다.

그같은 배경에는 스트레스 이해에 대한 한의학의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적 특징의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별히 한의학에서는 정신현상 중에서도 대인관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감정의 영향을 중시하여 七情으로 표현하여 인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파악하였다.

즉 한의학에서는 神形一體의 인체관으로 정신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감정의 편향이나 過極은 五臟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원활한 생리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하였으며 각종 신체 질환은 물론이고 정신질환도 신체작용의 상호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 이해하였다³⁾.

이처럼 移精變氣療法이 心身症이나 神經症에 효과적인 이유로는 한의학의 인체관과 정신에 대한 독특한 입장에서 비롯되는데 즉 감정적 스트레스를 七情이라 하여 七情의 병인적 작용을 七氣라 인식하였으며 心身症은 곧 氣病이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七氣나 九氣와 같은 氣의 병증이 진행되어 만성적으로 경과하게되어 나타나는 鬱症, 脫營失精症, 臟躁症이나 心風證 과 같은 精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이같은 失志症의 여러 병증은 神經症과 같은 범주에서 이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맺음말

현대사회의 가장 특징중의 하나인 스트레스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그만큼 각종 다양한 스트레스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祝由와 移精變氣療法은 한의학 대표적인 정신

요법으로 시대적으로 상고시대의 마술적인 病因論에서 內經代 心身一 原의 病因論의 변천에 따라 祝由에서 移精變氣療法으로 심리 치료의 입장이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변화의 의의는 단순한 정신분석 차원의 祝由에서 정신과 육체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치료에 적용하는 移精變氣로의 의학관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移精變氣療法은 정신요법에서도 단순한 암시요법의 차원을 넘어서 神의 기초가 되는 精과 氣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정신중에서 감정의 안정과 신체 五臟六腑의 균형과 조화로 각종 정신신체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祝由와 移精變氣療法에 관한 문헌조사와 사료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祝由는 사회나 인간의 마음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았던 上古시대에 발생한 각종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巫醫에 의해 그 사유를 풀어 이해하여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이며 지극히 단순한 정신 요법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다.

2. 移精變氣療法은 祝由 이후 비교적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인간의 정신적 갈등도 그만큼 깊어지게 되어 祝由와 같은 단순한 정신요법보다는 移精變氣療法으로 氣와 精을 다스림으로 써 治神의 효능을 거두게 되는 神形一體의 정신생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3. 移精變氣療法의 작용기전은 주로 理智計謨의 방법으로 환자의 기분전환을 통한 감정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약물치료를 통해 神의 물질적 기초인 五臟六腑의 氣血과 精을 굳건히 함에 있다.

4. 산업사회에 이르러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상황 속에서 정신을 분석하는 단순한 祝由보다는 移精變氣療法이 정신중에서도 특히 감

정의 안정과 정신의 물질적 기초인 精을 굳건히 함으로 써 현대인의 정신병 치료에 새로운 역할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5. 현대인에게 移精變氣療法의 적용범위로는 주로 心身症이나 神經症의 범주가 이에 해당되리라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1. 대한동의생리학회편. 東醫生理學. 서울:경희대출판국. 1993:69, 70.
2. 가노우 요시미츠 지음. 중국의학과 철학. 서울:여강출판사. 1991:254
3. 황의완, 김지혁 編著. 동의정신의학. 서울:현대의학서적사. 1989:38-39, 61,, 766-769, 783, 785.
4. 張介賓撰. 類經(중국의학대계 44卷). 서울:여강출판사. 776-204.
5.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靈樞譯解. 서울:성보사 1980:108-112.
6. 王米渠 編著. 中醫心理治療學. 成都:重傾出版社. 1986:87, 100.
7. 박봉성, 고경식 共譯. 譯解 三國遺事. 서울:서문문화사. 1994:313
8. 홍순형. 한국 역사에 기록된 정신질환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81;20(2):185-194
9. 민성길 著. 증보판 최신정신의학. 서울:일조각. 1991:432.